

濟州와 琉球의 神話 比較 試論

許 南 春 (濟州大学校 国文学科)

<目次>

1. 序
2. 耽羅国과 琉球国
 - 1) 神話の 原始,古代,中世的 特性
 - 2) 古代国家와 中世国家
3. 結

<첨 부>

- 제주와 오키나와 학술문화 교류를 위한 미래 비전
- (2014년 6월 30일 제주학회)

1. 序

- 한때 海上을통해 万国을 連結하는 架橋가 되려고 했던 琉球 王国의 夢 - 尚泰久王의 万国津梁之鐘(1458年)
- 琉球国은 南海의 勝地로 三韓(朝鮮)의 우수함을 모으고、中国을 輔車로 삼고、日本을 唇齒로 여김。(琉球國者 南海勝地而鍾三韓之秀以大明為輔車以日域為唇齒在此二中間湧出之蓬萊嶋也 以舟楫為万國之津梁 異産至宝充滿十方刹)

周邊と琉球の關係

- 1. <隋書>に初めて登場した 流求(636)
- 2. 琉球王国は 15世紀東アジアを引き継ぐ重要な国家で 浮上
- 3. 中国に朝貢する近い日本と交通したが, 朝鮮とも深い関係
- 4. <朝鮮王朝実録>には琉球との交流が 437件が記録.
- 5. 1389年に 中山王 察度が高麗に国書を送りながら私たちと連関.
- 6. 1416年(太宗 16年)には琉球国 - 倭国につかまる行った朝鮮の 44人を刷還
- 7. 以後 35回にわたる 琉球で朝貢貿易使臣が派遣 - そのうち 25回から 34回までは倭寇あるいは博多商人が 琉球 使臣を騙ったこと

朝鮮과 琉球(考古人類學的側面)

- 樹上葬 등 民俗學的 側面에서 天上神 觀念이 강했던 朝鮮과 連関
- 喜界島(キカイガシマ)의 考古學的 發掘에서 8-12C 夜光貝를 輸出하고 鉄을 輸入
- 徳之島에 ‘カムイ焼’를 生産 - 高麗陶器技術의 系譜
- 喜界島 グスク - 朝鮮의 白磁와 靑磁가 出土
- ‘首里-今歸仁-奄美-朝鮮’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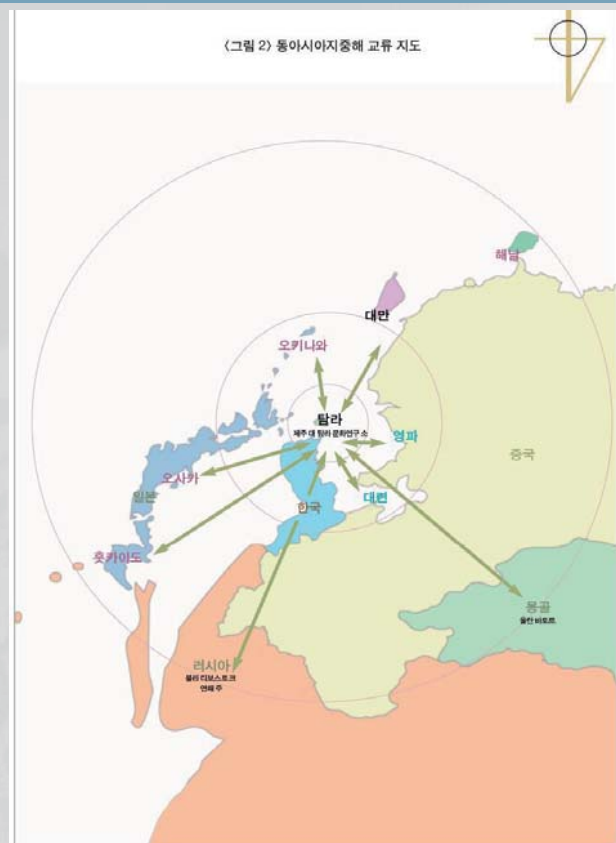


朝鮮과 琉球

- 11c – 14c 왕성하게 이용된 交易路(朝鮮루트)에 九州商人(九州와 対馬島の 民間貿易者と倭寇)이 개입하여 15c 폐쇄됨
- 琉球側은 방침을 바꾸어 朝鮮에 직접 貿易船을 派遣하지 않고, 九州·対馬島の 상인을 개입시켜 間接貿易의 형태를 취함
- 1431年頃 倭寇에 의해 朝鮮奴隸 100여 명, 1456년에는 女性奴隸가 那覇에서 팔림
- 貿易路는 倭寇에게 장악되고 유구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짐.

濟州와 琉球(過去)

- 濟州와 琉球 交流 - 高麗靑磁破片
- 琉球瓦記錄 ‘癸酉年高麗瓦匠造’ - 癸酉年은 三別抄軍이 패퇴했던 시기(1273)
- 1479年 요나구니에 표착했던 濟州出身 金非衣 일행의 기록
- 琉球王子的 漂流와 殺害



濟州와 沖繩(현재)

- 国土의 最南端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
-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과 보양의 땅.
- 독특한 民俗.
- 近代史에 本土의 暴力으로 큰 희생을 경험했던 점.
- 巫俗과 神話(口碑敍事詩)와 의례(굿)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점 -古代的 思惟를 담은 儀禮와 文学





論議의 方法

1. 記錄을 신봉하는 實証主義的 方法論을 반성하고, 記錄과 口碑傳承을 함께 중시하는 태도
2. 神話가 변이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3. 中心部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周辺部 文化가 지닌 특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

2. 耽羅國과 琉球國

- 지금 濟州와 沖繩라 부르는 지역의 원래 이름 - 耽羅と琉球. 耽羅는 古代國家였다 망했고, 琉球는 中世國家였다 망함.
- 耽羅國 - 古代國家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함.
 - - 현대 역사교과서에서조차 외면당함.
 - - 철저히 망각한 역사.
- 琉球國 - 日本史 가운데 온당한 독립국의 역사를 외면당함.
 - - 왜곡된 역사로 기록된 점에서 탐라와 같은 처지.
- → 둘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 인정돼야 하고, 近代國家主義의 횡포에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神話의 原始, 古代, 中世의 特性

- 沖繩 巨人 아만추- ‘하늘의 인간’ 이란 의미.
- - 太古에 양손과 양발의 힘으로 하늘을 떠받침.
- - 또한 어느 때인가 해와 달을 지금의 위치에 매달아 둠.
- 이 거인 아만추 이야기에는 아마미쿄 이야기가 삽입된 듯. 오모로사우시(10冊 52番) - 琉球 開闢의 이야기.

變異樣相

- 아마미쿄는 태양신의 명령을 받아 나라를 만드는 일에 나섰는데, 인간세계는 천계의 후예를 혈통으로 삼았다.
- 外間 = 아마미쿄의 위에 太陽神이 위치함. 왕이 太陽神의 명령을 받는 신화체계 - 王權強化와 連関 - 王國의 理念을 만들어가던 尚眞王 時代라는 歷史的時点
- 아마미쿄 = 天地創造의 神 - 國土創造의 神 - 主神 太陽神의 下位에 있는 從神(先祖神)

変異様相

- 아미미코와 남신(시네리야) 부부가 지상에 내려와 섬을 만들고, 3男2女를 두었다 함. 1男은 왕이 되고, 2男은 아지(按司)가 되고, 3男은 민이 되고, 1女는 神女가 되고, 2女는 巫女(のろ)가 되었다고 함. 왕은 琉球를 셋으로 분할하여 통치.
- - 三山時代를 반영.
- - 高天原으로부터 내려온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즉 日本의 開闢神話와 유사
- - 時代的 흐름에 따른 變異様相

垂直的 他界觀, 水平的 世界觀

- 아미미코는 바다 멀리에서 왔다는 도래신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천강신이라는 이중적 존재.
- 바다를 통해 왔다는 來訪神에 주목해야.
- 琉球에는 하늘로부터 인간세계에 내려왔다는 垂直的 他界觀 이전에 水平的 世界觀이 존재했음

나라이가나이

- 나라이가나이 = 豊饒神이 출자하는 곳, 農耕에 재앙을 가져다 주는 虫鼠 등 유해한 것을 보내는 곳
- <오모로사우시>에는 ‘니루야’ 신이 수평적 이동을 하는 신으로 나타남.
- 수평적 이동이 앞서다가, 후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天上界의 권위를 빌려옴. 그래서 수직적 이동의 이야기가 덧붙여지거나 변모함.
- 水平的移動 - 垂直的移動







오보츠 가쿠라 信仰

- 오보츠는 天上의 신이며 王權의 守護神- 沖繩 本島와 奄美에 넓게 분포(宮古, 八重에는 없음)
- - 天界 思想은 沖繩 고유의 사상이 아니고 외래에서 들어온 신앙
- - 天上界와의 관련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尚氏 王朝의 意志가 反映
- - 오보츠는 天神, 山神, 祖上神 思想이 결합
- - 韓國과 日本의 建国神話에는 이런 관념이 보편적. 우타키(御嶽)와 같은 山岳崇拜 信仰은 북방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濟州島의 原始 古代 神話

1. 創世神話 - 天地王神話(본풀이)
 2. 巨女神話 - 설문대할망 神話
 3. 地母神 神話 - 후에 건국주(王)의 母系神
 4. 從地聳出 - 耽羅国 3神人이 땅에서 솟아남
 5. 到来神格 - 3女神이 碧浪国(日本国)에서 漂着
- * 땅에서 솟아나고, 바다를 건너온 신화 = 天降神話 이전의 형태.











2) 古代国家와 中世国家

- 1531년에 記錄된 <오모로사우시> 第1卷 1章을 보면 ‘聞得大君’을 칭송하는 내용.
- 聞得大君은 国巫이면서 동시에 神格, 太陽神의 代理者
- 聞得大君이 国王에게 나라를 통치할 靈力을 주고, 国家의 안녕과 国왕의 통치를 찬미하는 내용.
- 天上의 神格과 地上의 巫格이 一致, ‘神格-国巫-王’ 등이 三位一体.

王과 国巫

- 하늘의 존재와 지상의 지배자를 연결하는 国巫의 힘이 느껴짐 - 巫俗的 司祭者가 권력을 유지. 그런 가운데 고대적 요소 가득.
- 古代国家初期에 治者と 司祭者가 分離(王과 聞得大君, 新羅 南海王과 阿老)되고 서서히 王權優位로 변해감.
- 濟州島와 沖繩의 곳이 중요한 이유는 文化的 始原性を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진 사유를 잘 간직하여 전함.

① 古代英雄敍事詩

- 新里惠二 - 尚巴志의 時代를 古代国家로 規定
- 高良倉吉 - 10-14c를 구스쿠時代, 14c를 三山時代, 그 다음을 第1尚氏王朝와 第2尚氏王朝로 구분, 10c부터 사츠마의 침입을 받은 17c初까지를 ‘古琉球’라 규정. - 古代와 中世의 두 시기를 섞어 時代区分
- 外閑守善 - 13c 후반 활약했던 에이소(英祖)와 14c 중반 활약했던 사츠도(察度) 時代를 두고 鐵器 농기구를 확산시켜 농업생활의 혁신을 가져온 古代社会라 규정. 에이소와 사츠도는 古代国家 建設期の 文化的 英雄.

에이소(英祖)

- 에이소의 경우 젊은 시절에는 戰爭英雄이었다가, 다음 시기에는 仏教와 文字를 받아들인 文化英雄.
- - 鐵器와 農業을 중시했던 점에서는 古代国家時期의 殘映, 古代英雄的 面貌
- - 仏教와 같은 中世宗教의 토대를 마련하고 愛民精神을 보여준 점에서는 中世英雄的 面貌



사츠도(察度)

- 察度도 鉄器를 보급하는 英雄으로 登場했던 古代的 面貌강하지만, 이 時代(1372)에 明과 朝貢關係를 가지면서 명실공히 中世 國家에 編入됨.
- - 外間守善는 文字의 流入, 鉄器의 使用은 原始社會를 탈피해서 古代社會의 誕生이라고 해석했지만, 中世性을 보지 못함.







尚氏王朝

- 1429年第1尚氏王朝成立 尚巴志王
- 1470年第2尚氏王朝成立 金丸
- 1477年 尚真王 即位
- 1531年 おもろさうし 第1冊編纂
- 1623年 おもろさうし 22冊編纂

尚氏王朝

- 尚巴志の登場には <佐銘川大主(鮫川大主)-苗代大比屋(苗代大親)-佐敷小按司> 3代の話が一緒に連れされる。
- 苗代が 尚巴志の父親 - 口碑傳承には 苗代の祖父である 屋蔵大主と曾祖父である 上與座按司が登場したりする。
- 上與座按司は 南山グスク義王と兄弟だったが、兄弟間に戦争が起こる 殺されたと言う。それで 屋蔵大主が 伊平屋に逃亡来るようになったと言う。
- 文献にも口碑傳承にもその息子 鮫川大主が 伊平屋と 伊是名島に住みながら農業をする大きく興って尊敬受ける事をしたと言った。しかし島に飢饉が入る騒動が起きる結局島を脱出するようになったと言う。彼は '場天の浜'にわその地域 按司の娘と結婚して息子を生んだら彼が 苗代大親(尚思紹王)だ。

英雄の一代記

- 尚氏の先祖は南山の王と兄弟だったという貴い血統を持ったが闘いで敗北、脱出して新しい所で人心を得たが飢饉と騒動でまた脱出、新しい所で按司の助けを借りる彼の娘と結婚して新しい機会を迎えるようになる。
- '場天の浜' は文物が出入りする港なのにそこで勢力を形成、王に上がる。與那原港に入ってくる物心を購入して農機具を作る民たちに提供したと言う。ところで戦争が起こるとこの農機具が原動力になる中山・南山・北山を攻撃してつぶしてしまったと言う。



英雄の一代記

- ‘고귀한 혈통 - 탁월한 능력 - 기아 - 양육자 만남 - 투쟁에서 승리’라는 <英雄の一代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主人公이 鉄器文明, 고대국가 성립과 깊은 관계를 지닌 인물임이 확인됨.

推定

- 沖繩에는 미미하게나마 古代王權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강력한 고대국가적 왕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작은 폴리스 형태를 병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고대신화가 면면히 계승되어 잠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尙氏王權은 민중에 친숙한 古代神話에 의탁하여 지배의 정당성과 왕권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대신화를 차용했다.

② 中世英雄敍事詩

- 琉球 三山 統一 王朝가 탄생하기 전 1372年 察度が 明에 朝貢
- 察度の 子 武寧 때, 처음으로 中国의 冊封을 받음(1404年) → 이때 琉球는 이미 中世化의 길을 걷게 되었다.
- 尙真王 때에는 朝貢을 2년에 한 번에서 1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면서 朝貢貿易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仏教에 귀의하는 것과 동시에 民衆을 사랑하는 면에서 조세 경감 조치를 취하면서 中世的 國家 經營방식을 채택함.

古代의要素의 中世化

- 巫俗的 祭儀는 尚真王 때에 서서히 宮廷儀禮에 재편됨.
- <오모로사우시>=古代英雄 敍事詩를 모방한 中世 敍事詩
- 内容: 王과 國家 祝願, 國家安泰과 海上安全, 五穀豐饒를 祈願, 王과 英雄 讚歌, 戰爭, 航海, 風景, 日月星辰, 戀愛, 農民 親愛, 술과 유흥 - 太平 聖代를 贊美하는 中世性.
- 古代神話는 支配의 正當性을主張하며 하늘의 權威를 지원하는 英雄의 一代記 → 中世의 神話는 백성과 농업과 平和를 지향하고, 平等을 주재하는 英雄의 一代記

오모로사우시와 竜飛御天歌

- 오모로는 短形의 에피소드의 結合.
- = 朝鮮王朝의 <竜飛御天歌>와 類似.
- 朝鮮의 <竜飛御天歌>는 太祖 以前 4祖와 太祖·太宗의 英雄의 一代記(1445年)
- 특히 太祖의 英雄的 面貌가 中國의 英雄과 比較하여 대등하다고 여긴 敍事詩
- 125章의 에피소드가 나열되어서 敍事性이 결여됨.

오모로사우시 (1)

- 修辭的인 言語
- 慣用語인 표현
- 誇張된 讚揚 = 中世 宮中儀禮 讚歌들의 普遍的 屬性
- 1章부터 11章 사이에 ‘千万世’ ‘千令’ ‘百歲’ ‘末長く’ 등 王の 千寿, 王室 繁榮 祈願 = 宮庭 音樂으로 “千歲를 누리소서, 万歲를 누리소서”를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 악장과 매우 유사함.









오모로사우시 (2)

- “今日の良かる日に 今日のきやかかる日に”
(今日の吉き日 今日の輝かしい日に) = 19章,
21章, 23章에 연속으로 나타나고, 381章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에서 반복적.
- = “오늘과 같이 좋은 날에, 오늘과 같이 특별
한 날에”라는 ‘잔치의 흥취를 높이는 致辭
‘에 해당함. <青丘永言> ‘心方曲’, 濟州의 巫
歌에도 慣用的으로 등장하는 구절이다.

오모로사우시 (3)

- 1冊의 序頭 '聞得大君'
- - 그 意味는 太陽神, 最高의 神女の 称号
- - 太陽神이 내려와 憑依된 神女를 意味
- - 天의 存在와 地上의 存在(今王)를 連結하는 国巫
- - 聞得大君의 大君은 朝鮮 王室의 儀礼歌에서 보이는 '님'에 해당함.

오모로사우시 (4)

- = 神格을 찬미하던 관습은 서서히 왕을 찬미하는 관습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님'으로 변모.
- = 神格을 讚美하던 때에는 祭儀歌였다가, 王을 讚美하는 시기에는 宮中儀礼歌였다가, 사랑하는 님을 讚美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抒情歌로 변화.





伊波普猷는 日琉同祖論을 主張

- 그는 明治維新 直後 日本에 편입된 琉球人에 대해, ‘劣等한 民族性’을 논하면서 “明治12年 廢藩置縣은 微弱한 沖繩人을 改造하는 좋은 機會”라 말해, 民族改造論을 主張=植民地朝鮮의 李光洙와 同類
- 그런데 伊波는 ‘琉球 研究의 先達’이면서 ‘王國을 発見했던 琉球의 知識人’이라 평가됨.
- 沖繩과 日本의 調和를 確保한 後, 沖繩의 独自性을 強調하려 했다고 변명함.
- 그는 沖繩人은 ‘琉球民族’이라는 正體性을 항상 念頭에 두어야 한다고 말함.



外閑守善과 伊波普猷

- 外閑守善은 ‘아마미쿄’가 日本本土와 연관성을 지닌다고 주장
- 九州의 東南海岸에 居住하는 아마베 (海人部)와의 關係=北方에서 서서히 남쪽으로 건너온 民族移動(伊波普猷의 學說) 주장.
- 神社와 우타키(御嶽)를 비교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연관성을 무리하게 주장.

帝國日本の 植民主義

- 伊波의 일본 同調와 獨自性 主張 사이에 柳田 國男가 있다.
- 야나기타는 日本의 源流를 南方에서 구했다. - 紫貝와 稻作을 갖게 된 日本民族의 先祖를 南側 島에서 불러들였다고 주장함.
- 야나기타와 伊波普猷의 緊密한 公조에 의해 ‘잊혀졌던 原鄉으로서의 沖繩과 民俗의 価値’를 강조함.
- 同質性 主張도 문제지만, 古形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後進性’을 인정하는 태도 속에 帝國日本の 植民主義가 있다.

帝国日本の 植民主義(2)

- 岡本太郎 <沖縄文化論>에는 ‘잊혀졌던 日本’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오키나와를 노하는 본토의 목소리가 대개 그렇다.
- -日本 자체가 변했지만, 沖縄에는 아직 순수한 모습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 목소리 속에 제국주의의 음모가 있다.
- - 일본 중심부의 근대화가 가속화되어 변화하는 와중에, 오키나와가 古形을 유지한다는 속에 일본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말은, 그 후진성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태도도 있다.

植民主義 克服

- → 民族과 言語의 同質性を 드러내는 가운데 国家와 民族의 영역에 봉사하도록 강요했고, 異質성과 独自성을 억압해왔던 国家主義的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 → 各民族과 地域의 独自の 文化를 인정하는 것은 民族 矛盾을 해결하는 方法 → 이럴 때에 비로소 近代가 자행했던 살육과 기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 → 帝国主義에 억압되었던 第4世界の 少数民族(혹은 지방)과 言語와 文化를 인정하면, 平等과 평화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연대가 성립될 수 있다.
- → 일본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일본이라는 국가 아래에서 일본과 오키나와와 홋카이도가 공존할 있게 된다.

第4世界

- 近代国家로부터 逼迫당했던 少数民族, 혹은 中央政府로부터 無視당하고 疏外되었던 地方을 第4世界라 지칭한다.

沖繩과 濟州의 今日

- 日本과 미국의 國務長官과 国防相 4人-普天間 基地移轉問題를 白紙化(4者會談)
- 濟州는 미국의 對中国 MD 体制構築의 一環으로 보이는 軍事基地配置
- 濟州 강정 海軍基地는 후텐마 基地를 대체하는 미군의 새로운 기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国家主義를 넘어서

- 1945年 2次世界大戦을 전후하여 두 지역에
서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는데, 또 다시 전쟁
의 전초기지로 내몰리려 한다. 인권과 평화
를 정착시킬 길이 두 곳 다 멀어 보인다.
- 国家主義의 폐단이 두 곳에서 심각하다. 두
지역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연대를 위해
서는 역사적 문화적 근거를 명확히 연구해
서, 国家主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結-1

- 1) 北方, 大陸, 來訪神에 대한 언급은 日本과 일본신화의 보편성에 편입을 요구하는 시도였다. 普遍主義를 가장한 傳播論과 系統論에서 탈피해야 한다.
- 第3世界에서 第4世界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階級矛盾과 民族矛盾을 함께 극복해야 진정한 근대가 완성된다.

結-2

- 서로 다르면서도 소통하는 문화를 중시해야 한다.
- 和而不同의 정신이 필요한 때다.
- 20세기가 분석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공감의 시대여야 한다. 분석의 시대가 외면했던 공생 혹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結-3, 제주 오키나와 공동 학술 세미나

- <동아시아 바다의 중심, 제주 오키나와의 만남과 축제>
- 일시: 2014년 10월 중
- 장소: 오키나와 류큐대학, 오키나와 현청
- 주최: 제주도,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 후원: 류큐대학, 오키나와 현청

제1부 제주 오키나와의 역사·문화·민속

- 1) 오사카 지역으로 이주한 제주인 오키나와인의 생활사 비교
- 2) 일제하 남양군도로 끌려간 제주인 오키나와인의 생활사 비교
- 3) 제주 오키나와의 역사 문화 교류사 - 고려 삼별초의 오키나와 도래 가능성
- 4) 제주도 신당과 오키나와의 우타키 비교
- 5) 제주도 심방과 오키나와 노로·유타 비교

제2부 제주 오키나와의 축제

- 1) 오키나와 하리 축제를 통해 본 제주도 해양축제 가능성
- 2) 오키나와 관광문화를 통해 본 제주도 관광 활성화 가능성
- 3) 오리온 맥주 페스티벌과 제주맥주 축제 가능성
- 4) 제주와 오키나와가 함께 하는 세계 섬문화 축제

제3부 미래 제주와 오키나와

- 1) 중심과 주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으로서의 제주와 오키나와 정체성 찾기
- 2) 21세기 제주 오키나와 교류 상생 방안